

전당강화와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오게 될 전환의 계기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진행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전략적선과 투쟁방침관철에 총매진하고 있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가 4월 6일 수도 평양에서 개막되였다.

대회에는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모범적인 세포비서들을 기본으로 하여 여러 부문에서 사업하는 당세포비서들, 중앙과 지방의 당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6차 세포비서대회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대회장은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존엄과 위상을 만방에 떨치며 우리 식 사회주의 위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이 터치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개최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층조직을 강화하여 전당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당건설원칙이며 자랑스러운 전통이라고 강조하시고 당세포비서들의 임무와 세포강화의 중요성 그리고 세포비서대회를 당대회에 못지 않게 중시하는 당중앙위원회의 의도와 대회의 소집 목적을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번 대회가 당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보장하고 우리 혁명대오를 불패의것으로 다지며 당대회결정관철과 사회주의건설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가져오는 의의깊은 계기로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개최를 선언하시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조용원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가 보고 《당세포의 전투력과 투쟁력을 더욱 높여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을 무조건 결사 집행하자》를 제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전진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전인민적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건설사상과 리론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당세포사업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시여 전당강화의 빛나는 전성기를 열어주시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총비서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와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가 진행된 새로운 주체100년대는 당세포중시사상과 당세포강화로의 위대한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되는 영광의 년대, 투쟁의 년대로 아로새겨지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에서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 당정책관철의 전위대로로 강화하자!》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고 당세포를 강화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세포는 당과 대중의 혈맥을 하나로 이어주는 기본단위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전투단위,

제1선참호이라는 고전적정식화는 당세포의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을 과학적으로 천명한 불멸의 지침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제1차시, 군당책임비서강습회에서 당결정을 정확히 채택하고 무조건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는데 대한 문제, 당안에서 비판과 사상투쟁, 학습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로 전환시키는데 대한 문제를 비롯한 사상리론들이 명확히 제시됨으로써 일하는 당, 투쟁하는 당, 전진하는 당의 혁명적성격과 면모를 더욱 뚜렷이 하고 당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은 우리 당세포강화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기층조직강화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당세포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는 전당의 당세포비서들에게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당과 국가가 어려움을 겪을 때 서야 할 위치는 어디이며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가를 신

념으로 새겨주었다고 하면서 언제나 당세포비서들에게 최상최대의 믿음과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고 결음걸음 이끌어 주신 총비서동지의 은혜로운 손길을 떠나 우리 당세포비서들의 긍지넘친 삶과 값높은 영예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수많은 당세포비서들이 당정책관철의 척후병, 시대의 전형으로 역세게 자라나게 한 자랑분으로 되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오늘 우리의 당세포들이 사상 의지적으로 굳게 단합된 공고한 전일체, 대중속에 뿌리박은 당의 기층보루,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옹위하는 억척불변의 초석으로 굳건히 다져지게 된것은 전적으로 총비서동지의 탁월한 사상과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는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에서 제시된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 당정책관철의 전위대로로 강화할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당세포들의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에 대한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의 절대적인 숭배심이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렬해지고 사회주의의 높은 령마루를 향해 끝없

이 비약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모두가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과 혁명판으로 튼튼히 무장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고 하면서 당세포강화를 위한 과업들을 제기하였다.

그는 당세포비서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역사적임무의 중요성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전당과 온 사회가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살아숨쉬고 움직이도록 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실현에 총매진하며 총비서동지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혁명적 규율과 질서를 세우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당세포사업의 화력을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에 총집중하며 당면하여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째 과업을 결사관철하는데 지향시 켜데 대하여 말하였다.

당결정관철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특히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릴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이민위천, 위민헌신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인민을 위하여 혼신을 바쳐 일하는 당세포비서가 되며 군중을 총비서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세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당세포가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를 쓸어버리는 발원점이 되어 맹렬한 투쟁을 벌리며 도덕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에서는 집단주의교양, 도덕교양을 강화하여 자기 단위를 단합되고 전진하는 애국집단, 아름답고 고상한 도덕기풍이 차넘치는 공산주의집단으로 만듦에 대한 문제, 당세포비서들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높은 사상정신적품모와 자질을 갖추고 끊임없이 단련할데 대한 문제, 각급 당조직들에서 당세포사업을 적극 도와줄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당세포사업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오기 위한 방도적문제들이 언급되였다.

대회에서는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2면으로 계속)

전 당 강화와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오게 될 전환의 계기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진행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대회를 지도 하 시 었 다



(1면에서 계속)

토론들에서는 지난 기간 세포안의 모든 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며 당세포를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단합된 공고한 전일체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앞장에서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위력한 전투대로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이 심도있게 분석 총화되었다.

토론들을 들으면서 참가자들은 당세포의 전투력은 세포비서들의 실력과 역할에 달려있으며 당중앙의 의도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힘을 믿고 그들에게 의거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토론자들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초급정치일군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새겨안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세포 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킴으로써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에 적극 이바지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의 직접전투단위인 당세포를 더욱 강화하여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관철에서 획기적전진을 이룩해나갈 대회참가자들의 혁명적열정이 비등되는 속

에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가 4월 7일에 계속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조용원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와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이 회의를 지도하였다.

2일회의에서는 토론들이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를 향한 전투적과정에서 이번 대회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세포비서들은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가 제시한 세포강화방침관철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분석총화하면서 토론에 진지하게 참가하였다.

토론들에서는 당세포를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열렬의 충신집단, 당정책관철의 전위대로 만들어 맡겨진 혁명과업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세포비서들의 헌신적이며 진취적인 사업정신이 소개되었다.

토론자들은 당세포사업의 중심을 당결정집행에 두고 대중의 창조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 자기 단위앞에 제시된 당정책, 기본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한 성과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생활지도를 혁명과업수행으로 지향시키고 세포당원들의 가슴마다에 충성과 위

훈의 불을 지펴주어 지하전동차생산과 6축교류전기기관차개발생산, 전기기관차수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세포당원들이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업적, 혁명사적을 보위하는 혁명가라는 긍지와 영예감을 언제나 간직하고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를 영구보존하기 위한 사업에서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사상교양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한 데 대한 토론도 참가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주었다.

토론들에서는 세포당원들이 당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과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군중과의 사업에서 교양자적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 힘을 넣어 단위를 인민경제계획수행과 과학연구사업에서 모범적인 혁신자집단으로 만드는데 대한 경험들이 소개되었다.

토론자들은 당세포를 당중앙과 뜻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는 참된 충신의 집단, 사상적순결체로 만들 때 그 어떤 애로와 난관도 뚫고 당정책관철에서 훌륭한 결실을 가져올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준다고 말하였다.

지난 기간 당세포사업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당세포비서들에게 최상의 믿음

을 안겨주시고 당세포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비상히 높여나가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총비서동지의 탁월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조선로동당의 말단기초조직인 당세포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사상과 령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어나가는 충성의 전위대로 강화하여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전진을 이룩해나갈 굳은 의지를 피력하였다.

토론들을 주의깊게 청취하면서 참가자들은 당세포를 조직성과 규율성, 전투력과 투쟁력이 강한 강철의 집단으로 만들어 당대회결정관철에 힘있게 불리일으키는것은 전적으로 우리 당의 초급정치일군들의 역할에 달려있으며 당세포강화에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성과여부가 좌우된다는 중대한 사명감을 새겨안았다.

또한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는 정치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세포비서들이 늘 일감을 두둑, 세뭇씩 맡아안으며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돌파를 열어나갈 때 혁명과업수행에서 새로운 혁신과 위훈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토론자들은 조선로동당의 당세포중시사상을 받들고 당사업의 화력을 세포강화에

총집중하여 자기 단위의 세포비서들을 높은 사상정신적품모와 자질을 갖춘 유능한 초급정치일군으로 준비시키며 당세포를 하나같이 단합되고 전투력있는 집단으로 만드는데서 맡은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대회에서는 모든 세포비서들이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관철에서 자신들의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당사업기풍과 일본세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한 방도적문제들이 강조되었다.

력사적인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과 전당의 조직사상적강화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가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열의속에 자기의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하고 4월 8일 폐막되었다.

대회 3일회의는 당세포를 강화하는 사업을 전당강화의 중대사로 내세우는 당중앙의 숭고한 의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부흥발전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당정책관철의 기수, 집행자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참가자들의 비상한 정치적자각과 혁명적열의가 총만된 속에 진행되었다.

(3면으로 계속)

전 당 강화와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오게 될 전환의 계기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진행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 를 지도 하 시 었 다



(2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회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 비서들과 함께 주석단에 등단하시었다.

대회에서는 토론들이 계속되었다.

토론자들은 당세포비서의 본분과 기본 임무에 맞게 사람과의 사업에 힘을 넣고 조선로동당의 초급정치일군으로서의 품모와 사업방법을 체득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토론자들은 당사업에서 주선을 놓치고 당세포비서들이 초급정치일군다운 품모와 자질을 갖추지 못한다면 기층당조직들의 실천력이 당의 요구에 따라설수 없으며 사람들의 뜻과 마음을 하나로 합치고 집체적지혜와 창발성을 적극 발동할수 없다는 교훈을 찾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참가자들은 토론에 반영된 훌륭한 경험들과 교훈적인 문제들을 자신들의 사업과 결부하여 돌이켜보면서 당세포를 단합되고 전투력있는 집단으로 만들기 위한 실제적인 방도를 연구하였다.

대회에서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핵심, 초급정치일군이라는 값높은 영예를

인생의 전부로 소중히 간직하고 당세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적으로 해나갈 굳은 결의들이 표명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강령적인 결론을 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가 있는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당세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성과가 이룩되었다고 하시면서 어려운 시련속에서도 혁명대오강화와 사회주의건설에 이바지하고있는 세포비서들의 숨은 노력과 헌신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전당의 세포들이 하나같이 충실히 여물고 강쇠처럼 굳세면 어떤 도전과 시련이 중첩된다고 하여도 혁명투쟁에서 극복 못할 난관, 절령 못할 요새가 없으며 반대로 당세포들이 무뎠어져 제구실을 바로하지 못하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후과는 대단히 크다고 하시면서 일부 당세포들의 사업에 내재하고있는 주요한 결점들에 대하여 지적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현시기 당세포들

앞에 나서는 10가지 중요과업과 세포비서들이 지녀야 할 12가지 기본품성을 제시하시고 세포사업을 도와주기 위한 각급 당조직들의 과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세포비서들에 대한 당중앙의 기대는 대단히 크다고 하시면서 전당의 세포비서들이 비상한 각오와 결심, 투지를 안고 당세포를 인간적으로 굳게 단합된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세포로 만드는 데 전심전력함으로써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 굳게 다지고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를 향한 전인민적대진군을 힘있게 추동하리라는 믿음을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심원한 사색과 빛나는 사상리론적예지로 기층당조직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진로를 밝혀주시고 당세포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주시는 총비서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리며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울리었다.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 표창장이 모범적인 당세포비서들에게 수여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세포강화를 위한 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당세포비서들에게 표창장을 직접 수여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폐회사를 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번 대회를 통하여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데서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이 다시금 확증되었다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는 우리 당의 독창적인 기층조직건설사상을 발전풍부화하고 전당의 세포비서들에게 명확한 행동지침을 새겨준 의의깊은 대회로 주체의 당건설사에 뚜렷이 기록될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기쁨 떠나 어려울 떠나 변함없이 믿고 따르는 인민의 믿음에 기어이 보답할 확고한 결심을 피력하시고 조선로동당의 무한한 힘이고 불패성의 상징이며 특유의 칭호이고 명함인 어머니당이라는 위대한 부름앞에 떳떳하고 이 영광스러운 영예를 영원히 고수하고 빛내기 위하여 모든 당일군들, 당세포비서들

이 백배로 분발하여 투쟁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대회참가자들과 전당의 세포비서들이 이번 대회의 기본사상과 과업들을 가슴깊이 새기고 당세포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헌신분투함으로써 전당강화, 전당단결에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폐회를 선언하시었다.

대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사상과 명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당세포를 당정책결사관철의 전위대오로 튼튼히 다져 전당의 단결력과 전투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는데 이바지할 드높은 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는 당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보강하고 우리 혁명대오를 불패의것으로 다짐으로써 전당과 온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고 당대회결정관철과 사회주의건설의 획기적전진을 이룩해나가는데서 의의깊은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천만년 길이 모시리 인민의 아버지

태양질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태양질을 축복하듯 산과 들에는 온갖 꽃들이 활짝 피어나고 새들도 류달리 정겹게 지저귄다.

공화국의 인민들만이 아닌 진보적인류가 만민의 태양을 우러르며 그리움의 노래, 위인칭송의 송가들을 부르고 있다.

우리 겨레와 세인이 달과 해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가도 그이를 잊지 못하며 4월의 봄명절을 가장 성대하고 의의있고 뜻깊게 경축하고 있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아버지수령님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을 하늘로 내세우시고 인민을 위한 정치를 펴시어 인민의 행복이 꽃피어나는 사회주의타권을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수령, 자애로운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나라없던 수난의 그 세월 인민의 아들로 탄생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인민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그 누구보다도 가슴아파 하시며 해방된 조국땅에 인민이 주인된 새세상을 일떠세우실 용지를 품으셨다.

일찌기 10대의 시절에 나라를 찾기 위한 항일혁명투쟁의 길에 나선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기성리론에 매달리며 옳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시어 주체의 진리를 밝히셨다.

그이께서 밝히신 주체의 진리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그것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리론이다.

지구상에 많은 정치가, 사상리론가들이 있었고 명인들도 있었지만 아버지수령님과 같이 인민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내세운 사상리론가, 령도자는 언제, 어느 시대에 도 없었다.

주체는 오직 인민을 하늘로, 선생으로, 전지전능한 존재로 여기신 아버지수령님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독창적이고도 위대한 지론이다.

그이의 마음속에 인민이 어떻게 자리잡고있었는가 하는 것은 항일무장투쟁시기 한 천도교 도정과 나누신 이야기가 잘 말해주고있다.

천도교 도정 박인진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은 자리에서 우리가 《한울님》을 숭상하듯이 장군도 숭상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있다

면 그것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 올리였다.

그때 수령님께서 박인진도정에 게 묻론 나에게도 신처럼 숭상하는 대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인민이다, 나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겨왔고 인민을 하느님처럼 섬겨오고있다. 나의 하느님은 다름아닌 인민이다. 세상에 인민대중처럼 전지전능하고 위력한 힘을 가진 존재는 없다. 그래서 나는 이인위천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이런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였기에 것처럼 어렵고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나날 항일유격대원들에게 고기가 물을 떠나 살수 없듯이 유격대원들에게 고기가 물을 떠나 살수 없다는 것을 시종일관 강조하여오시였다.

전투를 하나 벌려도 인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조직하시였고 유격대원들속에서 인민의 리익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바로잡아주시고 일깨워주시였다.

이렇듯 인민을 귀중히 여기도록 세심히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유격대는 인민의 군대로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으며 일제의 100만대군과 맞서싸워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성취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새 조국건설과 준엄한 조국해방전쟁, 사회주의건설의 전 과정에 변함없이 이어져왔다.

해방후 토지개혁법령, 노동법령, 남녀평등권법령 등 그이께서 내놓으신 모든 시책과 로선들은 다 인민을 위한 것이였다.

자기 땅에서 마음껏 농사를 짓고 싶어하던 농민들의 세기적소망을 풀어주시고 해방전 무지와 몸매속에서 살아오던 이 나라 인민을 공장, 이야기기를 정답아 들어주시며 인민의 행복에서 락을 찾으신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는 일찌기 없었다.

언제인가 아버지수령님을 만나뵈은 자리에서 자본주의 나라의 한 정객이 드린 물음 이 있다.

《어디에 가든 (이언젠는 우리의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일어선것입니다.) 라든가 (이 과정은 전쟁을 하고있을 때 수령님께서 전쟁이 끝나면 만들자고 교시하시고 또 지도해주셨기때문에 생긴것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모든것이 (김일성주석님의 지도)로 되였다고 하는데 주석님께서는 언제 그런 전문기술들을 공부하셨습니까?》 그의 호기심을 풀어주시



검덕광산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주제 50(1961)년 4월

려듯 호탕하게 웃으신 수령님께서 농민들이 나를 보고 여기는 조건이 좋으니과 과일이 잘 자란다고 가르쳐 주시고 건설부문 일꾼들은 여기에 언제를 쌓으면 물이 고여 관개용수로 쓸수 있다라고 가르쳐준다고 대답하시였다.

너무도 통속적이고 너무도 자신을 낮추신 겸허한 그 이야기속에는 인민을 스승으로 전지전능한 존재로 여기신 그의 숭고한 인민관이 집약되어있다.

인민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나 꽃은날 마른날 가림없이 찾아가시며 해방직후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아버지수령님께서 걸으신 길은 무려 144만 5 000여 리에 달한다.

백두산에서 한나산까지 301번 왕복한것과도 같고 지구를 14바퀴반이나 돌수 있는 거리와도 맞먹는 이 머

리만 길을 걸으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으신 단위는 무려 2만 600여개를 헤아린다. 조국의 복단 온성지구로부터 분계연선마을까지, 서해의 간척지마을로부터 동해의 자그마한 바다마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수령님께서 걸으신 길은 너무나 사랑이였다.

어린이와 이야기할 때에는 어린이의 심정이 되어주시고 로인들과 이야기할 때에는 허물없는 친구가 되어주시였으며 다정한 어머니와도 같이 사람들의 속생각까지 다 헤아려주신 수령님이시다.

그이께서는 로동자들을 만나면 그들의 기쁨은 손을 허물없이 잡아주시고 농촌에 가면 밭머리에서 농민들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시였으며 사람들을 만나 담화하실 때에는 통탄도 즐겨하시

련하기업소에 가면 무너진 벽체에 앉으시며 전쟁으로 인한 폐허를 하루빨리 가시자고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절절한 호소가 그대로 들려오는듯싶다. 농촌에 가면 수령님께서 농민들과 농사일을 의논하시며 앉으시었던 수수한 명석이, 어촌에 가면 몸소 배에 오르시어 어부들과 물고기잡이를 의논하시던 모습이, 탄광에 가면 탄부들을 석탄층안으로 불러일으키시던 자취가 눈앞에 밝혀온다.

천리마대교조시기 어느 한 대회장에서 열정에 넘쳐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가 오늘날 공화국인민들의 기억속에 생생히 살아있다.

우리의 리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입고 오래 살수 있는 사회, 누구나 진보적이며 건전한 사상을 지니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다같이

몸바쳐 일하는 사회, 온 나라가 하나의 큰 가정을 이루고 화목하게 사는 단합된 사회를 건설하는것이다. ...

인민에게 레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주고 견인불발의 힘을 준 위대한 수령님의 리상, 그 리상을 현실로 꽃피우시기 위해 그이께서는 해방직후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무려 2 530여 일간, 근 7년세월과 맞먹는 일요일과 명절날들을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였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은 이인위천의 거룩한 한평생이였다.

하기에 오늘날도 공화국의 인민들은 심장으로 노래부르고 있다.

잠을 깨면 그 품 찾아 달려 갑니다 아 수령님 잠에 들면 품에 안긴 꿈을 꿈니다 아 수령님 한평생 바치시어 키워주신 그 품이 하도 그리워 아 자나깨나 생각합니다 수령님을 생각합니다

...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신 로고와 심혈이 끊이 없고 쌓으신 업적이 하늘에 닿아 인민이 세세년년 길이 칭송하고 노래하는 아버지수령님.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한평생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시였다.

오늘 공화국인민들은 사상과 령도, 품도와 덕망에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들과 똑같은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자애로운 아버지로 모시어 긍지 높은 삶을 누리며 발전과 번영의 최전성기를 열어가고있다.

한평생 인민위해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천만년고속에 펼쳐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끝없이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 펼치시는 정치는 철두철미 인민을 위한것이요 인민에 대한 열사부무로 일관되어있다. 그의 뜨거운 인민사랑의 손길에 의하여 열마천에는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작공의 발파소리가 강산을 울리였고 현대적인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건설도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인민을 제일로 위하시는 절세의 위인, 자애로운 아버리를 대를 이어 모시어 공화국인민의 기쁨과 영광은 끊이 없고 행복의 노래는 이 강산에 세기를 이어 울려가고있다.

본사기자 주 일 통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려고

뜻깊은 태양절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우리 겨레는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정오의 정으로 가슴뜨거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수령님의 평생의 념원이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나라의 분열로 하여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불행은 무엇보다도 가슴아파하시었으며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시려고 생의 마지막시까지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었다.

자신의 근심걱정은 오직 하나 아직 조국을 통일하지 못한것이며 자신께서는 자나깨나 분열된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생각뿐이라고, 조국이 통일되면 10년은 더 젊어질것 같다고 하시며 그이께서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시고 멀고 먼 길을 걸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20성상 백두의 협산준령을 넘나드시며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신

것은 분열된 조국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수령님께서 백두밀영의 등진불가에서 그려보신 조국은 백두산에서 한나산에 이르는 삼천 리조선이었지 결코 두동강난 조선이 아니었다. 하기에 수령님께서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3천만 가운데 조국해방이 곧 국토 분단과 민족분열을 낳고 그 분단과 분열이 근 반세기의 대국난으로 이어지게 되리라는 것을 예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쓰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외세에 의해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었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어 조국통일운동을 전면적적인 운동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내놓으시고 변함없이 견지하신 조국통일로선은 나라와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철저한 민족자주

의 로선이며 통일조국의 부강발전과 전민족의 풍성번영을 위한 참다운 애국애족의 로선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밑에 주체37(194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는 통일애국의 기치아래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한 력사적인 민족적회합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남조선에서 범법적인 《단선단정》조각책등으로 민족분열이 고정화될 위험이 조성되었을 때 남북련석회의를 소집하시어 북과 남의 각박, 각박, 각계각층의 애국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우고 조국의 자주독립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을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었다.

해방직후의 복잡다단한 정치정세속에서 극소수 민족반역자들을 내놓고는 남조선의 거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완고한 반공민족주의

자들까지 참가한 폭넓은 민족적대회합이 마련되고 이 회합에서 일정한 합의를 이룩하여 거족적인 애국투쟁을 벌리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민족대단결사상의 빛나는 결실이였으며 통일애국력량이 이룩한 력사적인 첫 승리였다.

한없이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지니신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조국통일문제를 두고 어느 날이라도 심리하시지 않은 일이 없으며 어느 한때도 편히 쉬지 못하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밝힌 조국통일3대헌장을 제시하시어 묶어세우시어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마련하시고 더욱 강화하시었다.

조국통일3대헌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3대헌정세속에서 극소수 민족반역자들을 내놓고는 남조선의 거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완고한 반공민족주의

어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구현하고있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과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조국통일을 가장 빨리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도를 밝혀주고있다.

조국통일3대헌장이 마련됨으로써 우리 겨레는 뚜렷한 목표와 방향,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끝바른 승리의 한길을 따라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온 민족을 묶어세우시어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마련하시고 더욱 강화하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조국애와 민족자주정신을 민족적대단결의 기초로 삼으시고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것을 조국통일위업에 복종시키시게 하는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 내세우시었으며 넓은 도량

과 아량있는 포용력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도록 손잡아주고 이끌어주시었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의 사상과 리념, 수령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간애와 민족애는 각계층의 동포들을 민족적대단결과 조국통일의 길에 과감히 나서게 한 힘의 원천으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을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조직적으로 묶어세우는 사업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고 통일애국의 주체적력량은 전민족적범위로 확대 강화되었다. 그들의 열렬한 민족애와 숭고한 덕담, 크나큰 믿음에 매혹되어 최성락, 용이상동포를 비롯한 해외의 수많은 각계층 민족성원들이 단합의 기치아래 통일애국의 길을 곳곳이 걸어가었다.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하여 그토록 정력적으로 활동해오신 수령님께서서는

애국애족으로 세차게 고동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심장의 박동도 겨레를 위해, 통일을 위해 바치시었다.

《김 일 성 1994. 7. 7.》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각에 남기신 이친필은 한평생 조국통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수령님의 불멸불후의 로고와 크나큰 심혈의 고귀한 정표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아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 불멸의 업적을 일념을 안으시고 통일위업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었다.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헌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해주시어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관철을 위한 튼튼한 초석을 마련해주시었다.

한평생을 조국과 민족에 대한 불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수놓으시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업적은 우리 민족에게 남기신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다.

조국통일과 민족의 무궁번영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오늘 또 한분의 백두산위인인 김정은원수님께 전해는 김정은원수님께 의해 빛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며 통일을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 계신다.

해외의 우리 겨레는 사상도 령도도 덕담도 품도 아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조국통일대행진을 힘차게 다그침으로써 이 땅위에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거두어 안아올것이다.

김 관 옥



조국통일 3대헌장은 통일위업실현의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주체86(1997)년 8월 4일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조국통일유언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 조국통일위업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종합체계화하시고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헌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통일로선이라고, 조선로동당의 주체적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3대헌장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있다고 천명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어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

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헌장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아가 한다고 밝혀주시었다.

조국통일3대헌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그 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3대헌장은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밝힌 통일위업실현의 불변의 지도적지침이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헌칙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원칙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조석이다.

민족자주는 민족문제해결의 핵이며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민족의 권리와 리익을 수호할수 있고 민족의 운명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조국통일문제가 바로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것만큼 나라의 통일은 마땅히 우리 겨레가 주인이 되어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해나가야 한다.

평화통일은 우리 겨레가 지니고있는 한결같은 념원이다. 조국통일이 평화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조선반도에 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가 누구든 참혹한 회

생자의 운명을 면할수 없고 민족의 존재자체가 위태롭게 된다.

민족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근본원칙이며 그 본질적내용을 이룬다. 조국통일위업은 그자체가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전민족대단결을 이룩할 때에만 우리 민족은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고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위대한 추동력으로, 결정적력량으로 될수 있다.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며 통일강국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강령이다. 이 강령에는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리념적기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오랜 기간 굳어졌던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조건에서 어느 한쪽의 제도에 의한 통일을 실현하려고 한다면 통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분열을 심화시키고 돌이킬수 없는 민족적재난을 가져오게 된다. 우리 민족의 요구와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가장 공명정대하게 실현할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이룩하는 길밖에 없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바로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는 나라의 통일을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가장 공명정대하고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는 기본방도가 제시되어있다.

이렇듯 조국통일3대헌장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일관되어있으며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루어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구현하고있다.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조국통일3대헌장이 마련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뚜렷한 목표와 방향,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었으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속함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어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헌장이야말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투쟁강령이며 조국통일의 전 행진에서 높이 들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김 현 일

인재증시로 밝은 미래를 앞당겨온다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째 과업수행을 위해 틀궤고있는 공화국의 곳곳에서 인재발굴하고 키우며 그들이 인민경제의 주요장구들마다에서 자질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인재란 사업을 훌륭하게 할만 한 자질을 갖춘 사람 또는 일정한 분야에서 한류담당할만 한 재목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인재는 국가의 제일가는 전략적자원이며 발전동력이다. 인재들을 적극 찾아내고 훌륭히 육성하며 적체적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서부터 변화를 일으키고 이를 발전시켜 국가사업과 경제사업, 인민생활에서 실제적인 진전을 가져오자는 것이 현실이 공화국의 확고한 구상이고 정책이다.

사회의 각 분야를 떠메고 나갈 인재들이 많은 민족과 국가의 발전과 번영의 활로를 열게 되고 강국의 위상을 떨치게 된다는것은 인류 력사를 통해 검증된 진리이다.

공화국은 창건된 때로부터 인재증시를 일관하게 내세우고 견지하여온 훌륭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다.

장구한 기간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공화국이 자립, 자력적으로 사회주의건설을 출기차게 발전시켜온것은 절세위인들의 인재증시사상과 탁월한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해방후 일부 사람들이

《시가지상조》론을 떠들었지만 새 조선건설에서 인재육성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일이라고 하시며 나라사정이 그토록 어려운 속에서도 첫 종합대학을 창립해주시었으며 조국의 운명이 판가리되는 전화의 나날에는 전선에서 싸우는 대학생들을 소환하여 교정에 세워주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고난의 행군시기 한푼의 자금도 귀하였지만 공장은 서도 과학은 서면 안된다고 하시며 과학연구자금을 아낌없이 돌려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인재증시사상과 높은 뜻을 변함없이 받들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은 지금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의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고있다.

지난 2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인재증시정책의 관철을 위하여 하신 말씀은 공화국인민들의 마음을 세계에 울려주었고있다.

인재를 장악하지 못하고 키우지 못하면 그 어떤 일도 할수 없으며 당대회결정도 관철할수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인재를 대담하게 등용하고 실천속에서 육성하여 당과 국가앞에 내세우는것이 모든 일꾼들의 공통적인 사업업태도, 사업기풍으로 되어야 한다고, 또한 착상력과 조직전개력, 장악력이 우수한 경영인재, 관리인재들을 발굴하고 의도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하신 그날의 열정에

넘친 말씀이.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 과학기술은 사회의 모든 부분의 발전을 좌우하며 전반적 사회발전의 높이고 속도는 다름아닌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에 의하여 좌우된다.

더우기 계속되고있는 졸업하고 첨예한 외부적환경은 공화국이 과학기술에 든든한 의거하고 인재들의 명석한 두뇌와 주도적역할을 발동하여 자력, 자립으로 부강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구축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일찌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오늘의 시대는 인재들에 의하여 나라의 국력과 경제문화의 발전이 좌우되는 인재증시의 시대라고 하시면서 온 나라에 인재증시, 과학기술증시기풍이 확고한 공풍으로 되도록 하며 인재들을 널리 찾아 적체적소에 등용하고 생산과 기술발전을 주도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뿐만 아니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나라를 지식적으로, 전방적으로 발전시키자면 가지적인 성과보다도 과학과 교육을 중시하고 그 발전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전략적구호를 제시하시였으며 과학기술전당 준공식에 참석하신 그날에는 인재들이 바다를 이루게 해야 한다고하시며 찾으시는 곳곳마다에서 인재증시, 인재육성을 위한 감동깊은 혁명대화들을 남기시었다.

주체104(2015)년 11월 평양 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높은 수준에 이른 통합생산체계를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완성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대학에서는 앞으로 나라의 공업을 떠메고나갈 인재들을 키워내는 인재농사를 잘하여야 한다고 격려해주시었다.

주체107(2018)년 7월 삼지연군(당시)을 찾으시어서는 음에 교육기관이 몇개나 있는가고 다정히 물으시고나서 동행한 일군들에게 전민 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도들에서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많은 인재들을 키워내야 한다고, 인재는 나라의 재부인 동시에, 시, 군의 발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가르쳐주시었다.

사회적진보를 추진하는것은 과학이지만 과학을 개척해나가는것은 사람이라고, 과학자, 과학인들을 위해서는 아가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그이께서 바치신 로고의 낮과 밤은 그 열마인가,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주체105(2016)년 3월 몸소 현지에 나오시어 려명거리건설을 선포하시며 우리의 교육자, 과학자, 인민들에게 문명한 문화생활조건을 보장해주는 인민의 거리가 또 하나 생겨나게 될것이라고 힘있게 선언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깊은 말씀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국의 전진을 떠밀어온 과학자, 기술자들을 영평의 최정

정에 떠맡아주시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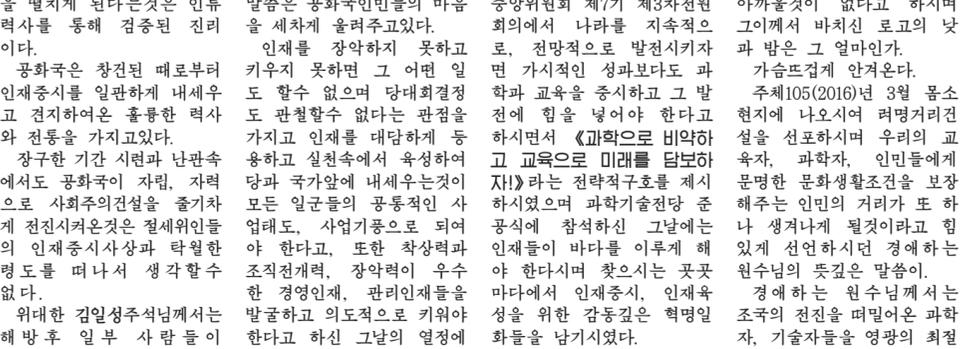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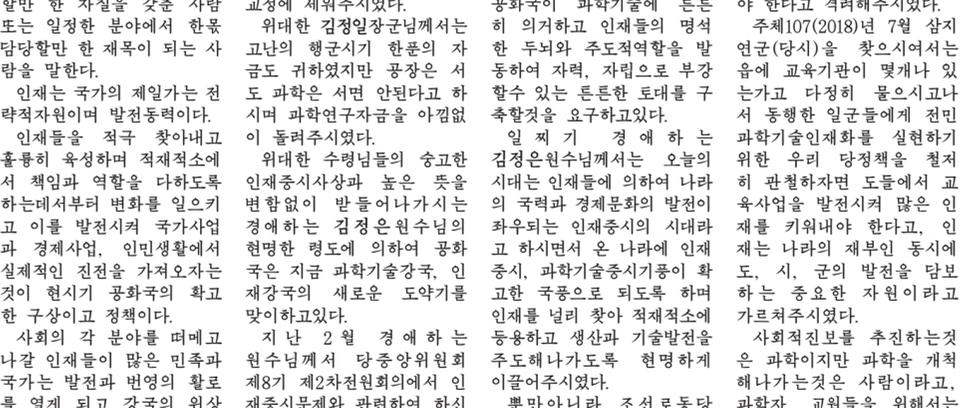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연공과학자휴양소, 미래과학자거리,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거리... 과학증시, 인재증시를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 인재들을 금싸라기처럼 이기고도 믿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은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 속에서도 그처럼 짧은 시간에 공직같은 행복의 보금자리들을 련이어 일떠세울수 있게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에서는 최근년간 전방적12년제의 무료교육이 실시되고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이 부단히 개선되어가고있으며 전국각지에 현대적인 과학기술보급기들이 훌륭히 꾸러져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의 청년대학생들이 세계적인 두뇌경쟁부대인 《코드트레드》경연에서 2020년 6월부터 련이어 6련승을 기록하는 혁혁한 성과를 이룩한것은 인재증시하고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는 공화국의 정책과 령도의 과학성과 진리성을 다시한번 실증해주고있다.

천리해안의 예지와 비범한 령도도 과학으로 흥하는 시대, 기적창조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공화국은 승리의 깃발을 높이 울리며 찬란한 미래를 힘차게 앞당겨올것이다.

본시기자 배 영 일



굴욕적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폐기를 요구

— 남조선 각계층의 목소리 —

남조선에서 굴욕적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폐기를 요구하는 각계층의 목소리가 세차게 울려나오고 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민중공동행동》은 얼마전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퍼주기》에 지나지 않는 방위비분담금협정을 전면폐기하라》고 요구하였다.

시민단체는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이 올해는

10차협정보다 13.9% 인상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국방비증가만큼 인상해주는것으로 타결됐다. 이는 미국의 막가파식 50억\$당당요구에 정부가 굴복했던 2020년 3월의 잠정합의안보다도 인상을 물이나 제도개선 등에서 국민의 부담을 더 늘리고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준것이라며 분노를 표시하였다.

또한 《국방예산증가를 적용하면 올해는 1조 1 833억원, 내년 1조 2 472억원, 2023년 1조 3 233억원, 2024년 1조 4 040억원, 2025년 1조 4 896억원이 든다. 현 정권 임기에 체결한 10차, 11차협정기간동안만도 무려 8조 7 189억원이나 미국에 퍼주게 된다》고 까맣혔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는 이번의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은 《력대 어느 정부하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사상최악의 굴욕적인 협정》이라며 이런 《치욕적인 안을 국민앞에 내민 당국의 과오

는 대국민적고대죄로도 도저히 용서받을수 없다. 당국은 이 협정을 즉각 전면백지화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6.15년성본부와 64개 여성단체 등도 방위비분담금협정결과가 《공평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평화적이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면서 그 폐기를 요구해나섰다.

한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창원지부는 성명을 통해 《국민혈세 빨아먹는 주한미군주둔

비, 국회는 그 비준을 거부하라.》고 요구하였다.

지부는 《국민혈세 8조원을 미군주둔비로 출수 없다. 방위비분담금증 미국이 쓰지 않고 남긴 돈은 2020년 현재 2조원이고 그중 9 700억원은 현금으로 미국은행에 들어있다. 우리 세금이 미국은행에 쌓여있어 미국은 리자놀이까지 한다.》고 까맣히 하였다. 그러면서 《당국부터 정신차려야 한다. 강도도 평화도 다 내주고 우리 돈까지 퍼주는 동맹이 과연 바람직한 동맹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국회》가 이번 협상을 거부할것을 촉구하였다 고 한다.

본사기자 주 광 일



만평 **굴종의 대가**



최근 《국민의힘》을 비롯한 남조선보수매당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이 더욱 우심해지고있다.

미국이 그 무슨 《대북경제강화》를 운운하고 반공화국침략전쟁연습을 정례화, 정상화해야 한다고 하자 망둥어마냥 뛰는 꼴뚜기메마냥 제일 구성을 부리는것이 바로 남조선의 보수매당이다.

동족을 겨냥한 침략전쟁연습의 정례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낸다. 립장문을 발표한다고 야단을치고 축소, 폐지되었던 대규모외기동훈련도 복원해야 한다고 피대를 두려고하고있다.

항상 동족을 걸고들며 더러운 정치적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악습, 죽어도 고치지 못할 대결병이 또다시 발작하는 모양이다.

남조선인심은 외세에게 친문학적연수의 방위비분담금을 섬기는데 대해, 동족을 반대하는 전쟁연습과 《동맹》강화를 떠드는데 대해 침을 뱉고있다.

선들도 눈이 있다면 남조선에서 전쟁연습반대, 평화수호의 투쟁이 왜 매일과 같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판단과 분별능력쯤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실에 대한 논리적사고가 엉망이니 시대착오적인 대결망동에 계속 매달리는 것이다.

상전으로부터 충실한 주구라는 《인정》을 받고 《잃어버린 10년》을 운운하며 보수 《정권》을 세웠던것처럼, 《유신》독재자의 망령까지 불러내어 보수 《정권》을 연장했던것처럼 다시 권력을 잡아보자는데 그 흥심이 있다고 본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악성전염병과 그 후파로 하여 최악의 고통에 몸부림치고있다.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보수매당은 민생을 살릴 생각보다 권력을 잡을 망상에만 몰두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민생악화에 대한 불안과 우려 확산

《서울경제》, 《시사저널》, 《경향신문》을 비롯한 남조선언론들이 최근 악성전염병의 장기화과 사회적방극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취업악화와 범죄증대 등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확산되고있는데 대해 보도하였다.

언론들은 얼마전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올해 1월현재 취업자수가 전례보다 98만 2 000명 감소하였고 실업자는 41만 7 000명 늘어나 1999년 실업통계개편이후 최고인 157만명에 달하였다. 각종 이유로 일자리를 잃어버린 《구직단념자》까지

합하여 349만명이 장기실업상태이다. 불안정한 고용에 놓인 비정규직노동자는 어림잡작으로 1 000만명이 넘는다고 전하였다. 그러면서 취업악화와 범죄증대 등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확산되고있는데 대해 보도하였다.

특히 몇년전에 류행되었던 《N포세대(주거, 결혼, 취업 등 모든것을 포기한 청년세대)》라는 말도 모자라 《벼락거지(벼락부자의 반대말)》라는 말까지 들어야 하는 청년들의 처지가 더욱 비참하다면서 지난 1월현재 청년고용률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 줄어들어 모든 연령층 가운데서 가장 감소폭이 컸으며 결국 청년취업포기자 30만명을 넘어섰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2020년에 《니트족》(취업준비와 직업훈련마저 포기한 청년무직자)이 전 해보다 8만 5 000명 더 늘어나 43만 6 000명에 달한다. 1년이상 무직인 《니트족》은 2017년 6만 6 000명에 있어 2020년 12만명으로 1.8배 증가하였다는 조사보고서자료를 인용하면서 청년층의 《니트족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3월 14일 《전자신문》은 전문가들의 89%가 남조선사회의 분열과 갈등, 빈부의 양극화를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있다고 전하였다.

다른 언론들도 《일자리쇼크》, 《부동산대란》, 《소득양극화》 등으로 고통과 절망속에 살아가는 주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있으며 청소년학생들속에서 싸이버폭력이 우심해지고있는것을 비롯하여 사회적약탈에 대한 우려가 커가고있다고 상세히 보도하였다.

본사기자

즐거우게 이어지는 반전, 평화수호투쟁

하여 주장하였다고 한다. 언론 《오마이뉴스》는 경상남도 진보연합이 창원시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경남평화대회》를 연 수식을 사진들과 함께 전하였다.

진주, 거제, 김해 등 경상남도의 곳곳에서 온 시민들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영구 중단》, 《침략전쟁연습 이제 그만》, 《평화협정체결》, 《대북적대시정책폐기》, 《주한미군 나가라》, 《진해미군세균전부대 추방》 등의 구호를 들고 거리를 행진하였다고 한다.

전쟁연습반대와 평화수호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세계평화에 호인민들, 단체들과의 연대성운동으로도 전개되고있다.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는 얼마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시민평화포럼,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한》반도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 국제여성자유평화연맹 등이 남조선민주화운동사연습중단을 요구하는 인터넷국제토론회를 진행하였다고 전하였다.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비용이 많이 드는 전략자산의 전개나 훈련의 도발적인 성격으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해왔다.》고 하면서 합동군사연습중단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투쟁소식들을 전하면서 언론들은 조선반도의 평화는 남조선뿐 아니라 전세계인민들의 관심사로 되고있다고 보도하였다.

박 현 절

은 전 검찰총장이 임의로 《총성》을 쏘고 배에는 칼을 품은 배신자, 정치에 뛰어들기 위해 검찰을 리용한 정치협잡꾼이라고 비난하면서 인물난으로 골을 썩이는 《국민의힘》에 있어서 그를 끌어안는것은 《끔찍한 재앙》이 될것이라고 예고하고있다.

한편 윤석열이 일단 정계에 진출하면 순간에 꺼지는 거품처럼 될수 있다는 평도 있다. 아무런 정치경험도 정치기반도 없는 정치생동이 사기잡합, 날치기의 란무장인 남조선정치판에서 견디어 내기 어려울것이라는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더욱이 《국민의힘》내부에는 이전 집권자들이 리명박과 박근혜의 부정부패행위를 알장서 들추어낸 윤석열을 욕버리는자들이 많다.

어느때, 어떤 방식으로든 그가 어느 보수야당이라도 기여들것은 변하지만 종당에는 《토사구팽》 즉 토끼를 잡은 다음 사냥개까지 잡아먹는다는 식으로 보수세력들끼리서 버림을 받게 될것이라는 분석이 그중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권력관탈을 위해 부패당여리를 보배인듯 추어대는 보수세력이나 권력야심에 들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윤석열이니 같고같다는것이 민심의 평이다.

본사기자 김 정 혁

악성비루스보다 더한 대결비루스들

일본사회에 만연하는 자살풍조

3월 중순 일본 후쿠오카현의 다가와시에서 한 여성이 어린 세 자식과 함께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여성은 유서에서 온갖 사회악의 소용돌이속에 앞날에 대한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져 몸부림치던 자기 신세를 한탄하였다고 한다.

알려진바와 같이 일본은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들중의 하나로서 이미 오래전부터 《자살왕국》이라는 오명이 붙어있다. 2016년에 이 나라의 자살률은 10만명당 18.5명으로서 세계적인 자살률보다 거의 2배 높았다고 한다.

지난해의 자살자수는 그 전 해보다 912명 더 늘어나 2만 1 081명에 달하였다. 자살현상이 하나의 사회적류행으로 되어 인터넷에는 《자살사이트》라는것까지 생겨나 자살을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을 찾는 글들이

이 빼적이 오르고있으며 가입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난다고있다. 개인리거주의와 황금만능주의, 극도의 인간중요사상과 당국의 반인민적인 정책이 일본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있다. 지금까지 일본당국은 《자살대책 100일계획》을 세운다. 자살대책서를 발표한다고 하며 그 무슨 대책이라도 취하는듯이 분주함을 피웠지만 달라진것은 하나도 없을뿐아니라 오히려 사회적비난만 커지고있다.

1920년대에는 《산미중식 계획》의 이름 밑에 42만 7 500명의 땅을 조선농민들로부터 빼앗았으며 착취와 착취를 강화하여 1927~1931년에는 년평균 660만 7 000석의 옥백미를 일본으로 실어갔다. 한편 1925년 9월에는 《일본인 1 000만명 조선이주계획》이라는것을 발표하여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온 일본이주민들이 조선농민들의 땅을 빼앗고 주민행세를 하게 되었다.

땅을 빼앗기고 보금자리를 잃은 수많은 조선의 농민들은 살길을 찾아 깊은 산속으로, 암록강과 두만강, 한해란을 건너 정착일이 떠나가

지 않으면 안되었다. 당시 정은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조선농민들의 참상에 대하여 《동아일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해마다 일본인의 이민이 늘어남에 따라 조선사람은 농촌에서도 살수가 없게 되고 농촌까지 일본화되는것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상중의 가장 중대한것의 하나이다.》

깊은 산속이라고 하여 일제의 마수가 미치지 않은것이 아니었다. 《평퍼물》마을의 참상이 그것을 말해준다. 살길을 찾아 북으로 가던 여러명의 농민들이 량강도 보천군의 어느 한 일대에 이르러 보짐을 풀어놓았다. 동쪽으로는 높은 령이 병

감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불바다, 피바다속에 잠긴 《평퍼물》마을들

푼처럼 둘러섰고 서쪽에는 세계의 큰 폭포수가 있는 천연수림지대인 이 지대는 사람들의 발길이 덜 미치던 곳이었다고 한다. 이곳에 저주로운 세상을 등지고 사는 자그마한 화전마을이 생겨났던것이다. 마을속에 들어앉은 마을앞으로는 산골짜기물이 졸졸 흘러내렸다. 이 물이 한데 고였다가 다른 물과 합쳐 아스라한 벼랑밑으로 떨어지는 데 그 물소리가 평평 울렸고 그래서 화전민들은 이 고장을 《평퍼물》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날이 갈에 따라 화전마을도 커지기 시작하여 몇해사이에 이 고장에 16개의 마을이 형성되었다. 가나했지만 왜놈들의 꼴을

보지 않고 기쁘도 슬픔도 함께 나누고 서로 도우면서 부지런히 일할수 있었던 《평퍼물》마을은 화전민들에게 있어서는 《별천지》였다. 그러나 그 《별천지》도 오래가지 못하였다. 침략전쟁에 필요한 목재를 강탈하기 위해 들어치던 일제놈들이 《평퍼물》마을에 기여들었던것이다. 놈들은 농민들에게 《당국》의 허가도 없이 땅을 개간한것은 용서할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여기는 《군용목재림구역》이니 며칠안으로 마을에서 떠나가라고 호통을 쳤다. 《평퍼물》마을농민들은 한덩어리가 되어 《못 나가겠다.》고 웨치면서 대항해나섰다. 그러나 간악한 일제야수들

다치는대로 총으로 쏘아죽이고 칼로 찢러죽이면서 계속 집들에 불을 질러나갔다. 이날 일제는 《평퍼물》의 16개 마을을 모조리 불태워 불바다로 만들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여 피바다로 만들었다.

그리고 《평퍼물》마을사람들을 영영 내쫓는 악귀같은 한행사를 감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시 신문 《동아일보》는 《80여호의 민가에 방화, 천여명의 화전민 출출》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감자와 귀뚱을 심어 근근히 연명하여가는데 이와 같은 가혹한 수단으로 방화추출》하였다고 전하였다.

단지 《평퍼물》마을사람들만이 당한 참변이 아니었다. 삼천리금수강산인 제나라, 제망을 가졌지만 일제강도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망국의 처지에 처한 조선사람모두가 강요당한 피눈물나는 운명이었다.

재 주 연

그놈이 그놈

최근 남조선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검찰총장직을 사임한 윤석열을 저마다 자기편으로 끌어당기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고 한다.

《국민의당》은 그가 《정의》와 《공정》이라는 가치에서 저희들과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느니, 현태가능성이 높다느니 하면서 추파를 던지고있다.

그러나 하면 《국민의힘》은 3지대로 정에서 성공한데가 없다고 하면서 그를 저들에게로 끌어당겨보려고 하고있다.

그런 속에 얼마전 윤석열이 《국민의당》 대표와 함께 일했던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제3지대출마》를 만류하면서 정계에 나서면 한달내에 정당에 입당하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보수야당들의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그놈이 그놈

최근 남조선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검찰총장직을 사임한 윤석열을 저마다 자기편으로 끌어당기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고 한다.

《국민의당》은 그가 《정의》와 《공정》이라는 가치에서 저희들과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느니, 현태가능성이 높다느니 하면서 추파를 던지고있다.

그러나 하면 《국민의힘》은 3지대로 정에서 성공한데가 없다고 하면서 그를 저들에게로 끌어당겨보려고 하고있다.

그런 속에 얼마전 윤석열이 《국민의당》 대표와 함께 일했던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제3지대출마》를 만류하면서 정계에 나서면 한달내에 정당에 입당하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보수야당들의 이러한 움직임

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그놈이 그놈

최근 남조선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검찰총장직을 사임한 윤석열을 저마다 자기편으로 끌어당기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고 한다.

《국민의당》은 그가 《정의》와 《공정》이라는 가치에서 저희들과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느니, 현태가능성이 높다느니 하면서 추파를 던지고있다.

그러나 하면 《국민의힘》은 3지대로 정에서 성공한데가 없다고 하면서 그를 저들에게로 끌어당겨보려고 하고있다.

그런 속에 얼마전 윤석열이 《국민의당》 대표와 함께 일했던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제3지대출마》를 만류하면서 정계에 나서면 한달내에 정당에 입당하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보수야당들의 이러한 움직임

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